



제8기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수 기 집

우리의 성장이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우리는 지금 매우 빠른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 시대에 삶을 영위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항상 보다 새로운 사회, 보다 새로운 시대를
창조해야 하는 사명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

아산(峨山) 정주영

비전 | 대한민국 비영리 분야의 미래를 이끌어 갈
차세대 리더 육성

목적 | 기업가정신, 경영 능력과 리더십을 갖춘
비영리 리더 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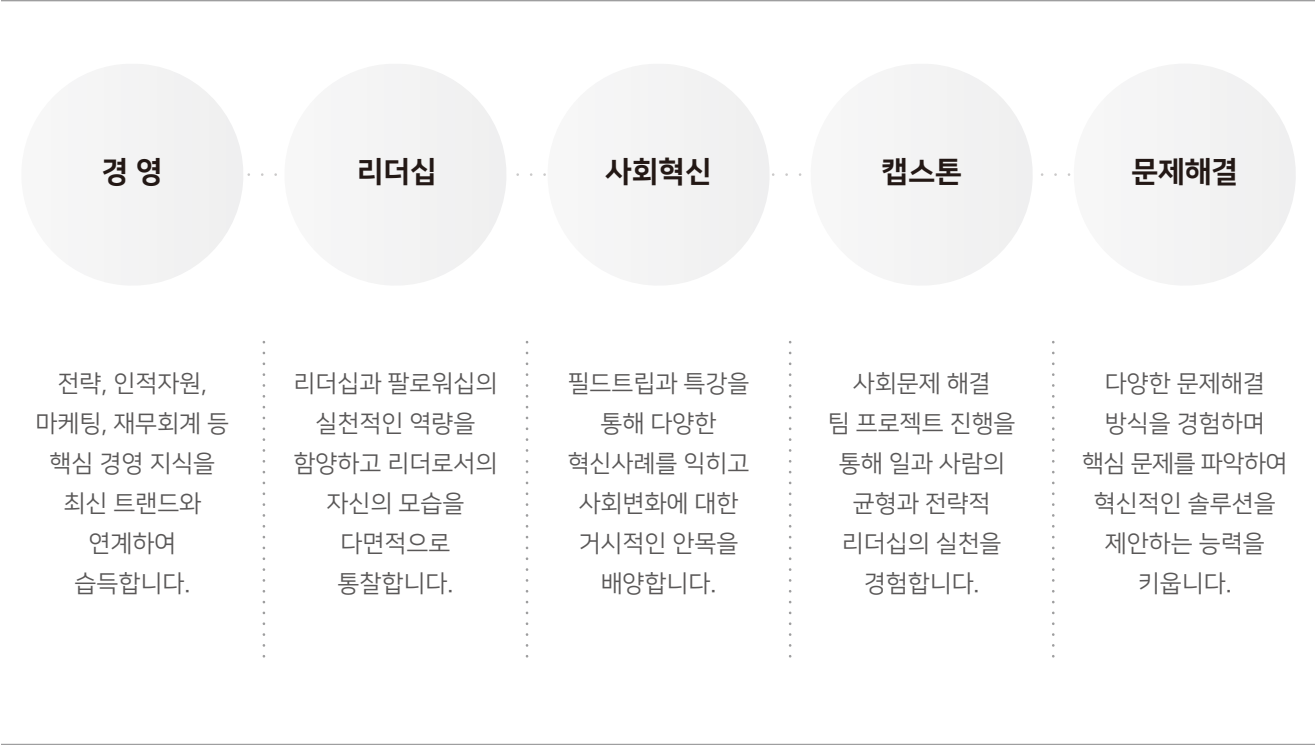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는 경영(전략, 인적자원, 마케팅, 재무회계)과 리더십, 사회혁신,
캡스톤 프로젝트의 통합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비영리 분야 종사자의 전문성을 키우고
리더로서의 성장을 돕고자 합니다.

**교육 콘텐츠 개발과 공유를 통해
비영리 분야 역량 강화에 기여**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는 비영리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 커리큘럼을
연구·개발하고 있으며, 교재 및 콘텐츠 공유를 통해 국내 비영리 분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교육과정 안내

7개월 간 진행되는 교육은 국내 영역별 최고 전문가의 강의와 함께 토론, 케이스스터디, 혁신기관 필드트립, 해외방문연구조사를 포함한 다면적인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운영방향

담임 교수제 모듈별 담당 교수가 직접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수업을 지도합니다. 	문제 해결 중심 과정 구조적이고 전략적인 문제 해결 과정을 습득하여 실제 사회문제 해결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현장 지향 수업 및 사례 기반 학습 조직 현장에 기반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국내외 단체 사례를 적극 활용하여 교육 내용의 충분한 이해를 돕습니다. 	아카데미 자체 커리큘럼 개발 및 공유 자체 커리큘럼과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공유함으로써 비영리 분야 지식 창출과 확산에 기여합니다.
토론 중심 학습 교육 내용과 관련된 참가자의 경험과 의견 및 소속단체의 현안을 공유하고 토론함으로써 강의 이해도와 수강생의 참여도를 증진 시킵니다.	지속적인 역량 강화 지원 영역별 전문가 특강 등 아카데미 동문을 위한 Alumni 프로그램을 통해 비영리 리더들의 지속적인 역량강화 기회를 제공합니다.

8기 발자취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

교육과정 진행



1·2차 캡스톤 발표



해외방문연구조사



수료식





제8기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수료 수기

- | | |
|-----------|-----|
| 고은이 | 송부연 |
| 고희경 | 신형란 |
| 권기효 | 유지원 |
| 기미경 | 윤효주 |
| 김광희 | 이미옥 |
| 김소정 | 이서영 |
| 김아란 | 이정연 |
| 김아영 | 임진희 |
| 김태준 | 정태민 |
| 김형수 | 조미진 |
| 남성주 | 최봄 |
| 박정민 | 최현주 |
| 변현주 | 추주형 |
| 삼부 오너르자르갈 | 한동우 |
| 서미연 | |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고은이 노틀담복지관



소명이라 생각하며 걸었던 장애인복지 16년. 지역복지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장애인분들을 만나 평범한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뛰었던 12년.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지원하는 혁신기획팀장으로 4년차를 지나, 5년 차에 들어서는 시기였다. 업무는 아주 익숙해졌으나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맞게 기관의 변화역량을 만들어 가기에는 부족하게만 느껴졌고, 역량과 한계로 일을 잘하지도, 재미있게 하지도 못하고 있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앞이 보이지 않았다. 뭔가 내 자신의 변화가 필요했고, 성장하고 도약하고 싶었다. 일을 재미있게 하거나 잘하고 싶었고, 길을 찾고 싶었다.

그래서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에 도전했다. 합격했을 때만 해도 변화하고 도약할 수 있다는 생각에 새로운 길 앞에서 희망이 생겼고, 행복했다. 이 길의 끝에는 빛이 있을 거라 생각했다. 나의 길을 찾고, 성장해서 씩씩하게 걸어가는 나의 모습을 꿈꿨다.

그러나 7개월의 시간은 결코 녹록지 않았다. 이종교배의 진화 가능성이라는 말처럼 교육과정, 함께하는 동기 선생님들을 통해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변화하는 사회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경험할 수 있었다. 흥미로웠지만 새로운 것들은 받아들이거나 적응하는데 낯설고 어려웠으며, 시간적인 제약이 있었고, 욕심 만큼 할 수 없었다.

리더십을 키울거라 생각하며 시작한 7개월의 시간은 오히려 부족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직면해 나가는 시간이 되었다. 캡스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내가 쓰지 않는 근육들을 사용해야 하는 순간순간 내가 가진 능력의 한계와 이 한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고민하는 시간이 있었다. 내가 그동안 키워온 나의 전문성이 무력한 순간, 그리고 삶에 대한 자세까지 직면하면서 받아들여야 하는 어려움이 존재했다. 옆으로 얼굴 돌리지 않고 달려온 나의 삶의 방식에 대해 돌아봄이 있었고, 나의 부족함을 받아들여야 하는 시간이 반복되었다.



7개월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기대했던 변화의 모습도, 환하게 트인 길도, 미소 지으며 씩씩하게 출발을 준비하는 나의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 대신 경험한 자신의 부족함을 받아들이고, 겹쳐 하게 7개월의 시간을 되돌아보며, 한 단계 딛고 일어서야 하는 내가 남아있다.

나에게 수료식은 끝이 아니다. 발견하고 직면한 나의 모습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그동안 일과 사람을 통해 배운 소중한 경험을 나 자신과 내가 하는 일 안에 녹여내는 것. 그 과정을 시작하는 새로운 시작이다. 리더십은 자신을 발견하는 길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준 7개월 간의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과정과 함께한 동기 선생님들과의 이 시간이 내 인생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돌아보니 은총이었네

고희경 사회복지법인 사랑의힘



봄에 내놓았던 화분을 안으로 들여놓으며, 부쩍 풍성해지고 쑥쑥 자란 화초들을 보면서 따스한 햇살과 바람과 물이 보이지 않게 성장시켜주었구나 싶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듯 약수역을 오가며 보낸 지난 7개월, 나는 얼마나 성장했는가? 성공의 정의를 자문해봅니다. 부족한 나를 위해 보이지 않게 얼마나 많은 분의 지원이 있었는지를 살피며 더욱 감사한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매주 화, 목요일이면 어김없이 약수역을 향하던 낯섦이 익숙함이 되었는데, 이젠 그 익숙함이 또 다른 낯섦으로 이어집니다. 수업이 끝난 화, 목요일 저녁 시간이 벌써 허전합니다.

보고 듣고 생각하고 집중하는 시간

지난 7개월 그 어느 때보다 책과 자료를 열심히 읽고 보았고, 전문가인 교수님들의 수업과 동기들이 근무하는 다양한 현장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변화하는 사회의 흐름에, 우리들의 내면에 집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걸음 물러서서 팀 속의 나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양념이 될 것인가를 고민하며 나의 일상을, 나의 생각과 느낌을 바라보게 해주었습니다. 캡스톤의 성과인지 영화를 보면서도 리플렉션 메모를 써야 할 것 같이 일과 사람에 대한 '성공의 정의'를 스스로 묻습니다. 이렇게 혼숨이 되었나 봅니다.

더디지만 더디지 않게

14박 16일 역대급으로 해외방문연구조사를 다녀온 조로서, 청년 느린 학습자들의 삶을 함께 고민하게 해 준 더딤 프로젝트 '따따블' 조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모듈 교수님들과 8기 동기들, 그리고 앞으로 만날 동문까지 새롭게 만난 많은 인연과 함께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수료생답게 우리 사회가 보다 나은 세상이 되도록 함께하겠습니다. 더디더라도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는 우리들이기에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수료식이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기에, 다가올 2020년을 더욱 기대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든든하게 지원해 주신 동료들과 가족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돌아보니 매 순간 아름다웠고, 감사한 시간, 은총의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비영리로의 결심을 굳히다

권기효 사회적협동조합 menTory



“왜 우리는 비영리여야 하는가?”

그동안 머릿속에, 가슴속에 작은 물음표를 달고 일하고 있었습니다. 복지 관련 전공자도 아니었고, 주변에 비영리 섹터에서 일하는 사람도 없었는데 그저 ‘세상을 위한 좋은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뛰어들었기에 일하면서 부딪히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특히 너무나 낮은 급여 체계와 앞으로도 나아질 것 같지 않은 성장하기 어려운 근무 환경, 모든 일은 실무자가 하지만 공은 대표에게만 돌아가는 현실, 혁신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관과 같은 답답한 조직 문화, 그리고 이런 현실은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비영리 섹터에 대한 물음표를 크게만 만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젊은 청년들이 모인 비영리단체의 대표가 되면서, 이제는 고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답을 찾아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답을 찾기 위해 소셜벤처, 사회적기업 창업지원 관련 역량강화 교육도 많이 들어봤지만 내가 하는 일, 우리가 앞으로 바라는 조직의 모습에는 뭔가 부족했습니다.

그런 고민과 혼란 속에서 제대로 한번 비영리에 대해 알아보자는 마음으로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에 입학했고, 또래는 아니지만 같은 고민을 해왔던 동료들을 만나고, 체계적인 커리큘럼의 교육을 들으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엄청나게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이야기를 들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동안 막연하게만 생각하고 어깨너머로만 알고 있던 내용들에 대해 제대로 마주하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는게 저에게 그리고 우리 단체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차세대 비영리의 롤모델이다”

확실한 답을 찾았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어떤 부분에서 실험을 해볼 만한가에 대해서는 결심을 굳힐 수 있었습니다. 젊고 유능한 사람들이 모여 일할 수 있는 환경과 문화를 만드는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했던 고민과,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에서 만난 동료들의 경험과, 교수님들을 통해 배운 사례와 정보들은 우리가 실험하고 도전을 결심하는데 큰 힘을 주었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은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제게는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커다란 수확입니다. 이제 또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기수 모두에게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한번도 감사하다, 고맙다는 말을 직접 하지 못했지만,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기간 동안 모든 동기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담대하게 그리고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용기

기미경 사단법인 캠프



무거웠다.

머리도, 마음도, 어깨도, 눈꺼풀도, 발걸음도...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를 시작하기 전 내 모습은 그랬다. 이 한 문장을 쓰는 지금 이 순간도 그때의 시간을 생각하면 눈물이 핑 돈다. 열정만 있으면 된다고 믿었던 어린 날의 순수함은 어느새 상처와 모순으로 뒤범벅되었고 나는 우두커니 길을 잃고 서 있었다. 그러다 문득 한 걸음 다시 발자국을 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그 날, 지원서를 접수하고서 생각했다. 더 이상 길을 잃고 싶지 않다고...

부끄러웠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에 입학하고 수업을 들으면서 나는 외면하고 있었던 내 안의 부끄러움과 마주하기 시작했다. 오랜 경험과 내공으로 현장을 누비고 계신 멋진 동기 선생님들, 알뜰살뜰 우리를 챙겨 주시는 아산나눔재단 선생님들 그리고 따뜻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교수님들의 눈빛을 보면서 나는 한없이 작아지고 또 작아졌다. 나의 부족함 그리고 오만함을 들여다보며 부끄러움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치열하게 발버둥 쳐야만 했다. 하지만 깨달았다. 발버둥 칠 필요 없다는 것을...

설레었다.

매 수업마다 새로운 콘텐츠들을 접하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다. 굳어진 사고의 근육들이 근육통을 겪는 듯 육신거리기도 했다.

때로는 쿵 하고 심장이 내려앉는 듯했고, 먹먹한 마음에 슬픔이 차오르기도 했고, 내 자질과 역량이 의심되어 불안감에 휩싸이기도 했다. 그러다 언젠가부터, 설렘을 느끼기 시작했다. 정신없이 업무에 치여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다가도 수업에 늦지 않으려 가쁜 숨을 내쉬며 달려 약속역 1번 출구를 올랐고, 그곳에서 만나는 하늘이 그렇게 반가울 수 없었다. 결단코 7개월의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다시는 느껴보지 못할 새로운 설렘이 있었다.

감사하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를 하면서 가장 많이 생각한 말이다. 이렇게 좋은 인연들을 만날 수 있어서, 이렇게 귀한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어서, 그리고 다시 나아갈 용기를 얻을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를 수료했다고 해서 길을 잃지 않는 능력을 갖췄다거나, 갑자기 길이 더 잘 보이기 시작한 것은 아니다. 다만 이곳에서 내가 배운 것은 우두커니 길을 잃고 서 있어도 괜찮으니 내가 두 발로 이 땅을 디디고 서 있음을 알아 차리는 것이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왜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것에 더이상 무거움도 부끄러움도 두려움도 없었다. 보이지 않던 족쇄를 풀고, 이제는 걷고 뛰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겼다.

새롭다.

책을 읽어도 글자들이 다 흩어지고, 좋은 이야기를 들어도 머리가 텅 비는 듯한 시절이 있었다. 이제 그 시절의 나에게 작별을 고하고, 새로운 나를 만날 수 있어 더없이 반갑다. 좋아하는 S.D 알린스키 책의 문구를 곱씹어 보아도 더 이상 체하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8기의 성공적인 수료를 축하하며 함께 이 글을 나누고 싶다.

‘세상이 당장 엄청나게 좋아지고 뒤집어질 것이라는 환상이 없어도 우리는 세상을 조금 더 좋게 만들 수 있다. 많은 사람의 좋은 마음과 노력이 모여서 세상을 조금 더 좋게 만들고, 가난하고 목소리를 갖지 못한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행복해지는 것은 충분히 가능

하다고 믿자. 존재하지도 않는 외부의 힘과 어떤 환경 변화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노력 연속이 지속적인 변화의 가능성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소박한 진리를 믿을 수 있으면 좋겠다. 기계처럼 돌아가는 시장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이 아닌,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반응하는 사회의 중요성을 믿어보자. 진리는 만유인력의 법칙이 아니라 만유인력에도 불구하고 새가 하늘 높이 솟아오른다는 것이다.’



결국 나로 돌아와 시작하게 되는, 그렇게 AFA 했던 시간들

김광희 한국장애인개발원



나는 매일 일기를 써 내려갔다. 하루하루 쉬운 날이 없었기에, 내 일기장은 온갖 어두운 감정으로 색칠되었다. 물론 가끔 현실 도피를 위해 밝고 희망적인 글들도 써 보았지만 그리 오래 가지 않았다. 나 자신을 속이는 건 어려웠다. 역시나.

2019년은 내게 아픈 시간이었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들을 해나가기 위해 나는 나와 내 가족과 내 동료들을 힘들게 했다. 나 자신을 위해, 조직을 위해 나는 지금 성장하고 있다고, 교육을 통해 배운 지식과 감정들을 가능한 많은 이들과 나눌 것이라고 다짐하면서도, 내 일상은 밀린 업무에 힘들어했고, 집에서는 아내와 아이들에게 한없이 미안했다. 나는 이기적인 사람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사무실을 나와서 교육장으로 가는 길에 난 마치 첫사랑을 만나러 가는 10대 소년처럼 설레었고, 교육을 받을 때는 흘러가는 시간이 아까웠다. 교수님들과 8기 동기분들과 같은 공간 속에 있으면서 그들의 말, 때로는 그들의 표정, 말투, 제스처 및 움직임 등을 관찰하며, 나는 끊임없이 나라는 사람의 조각을 끼워 맞춰 나갔다. 그 과정은 결코 유쾌하지 않았다. 아니, 사실 무척 힘든 과정이었다.

7개월이 너무 빨리 흘러갔다고 느낄 만큼 아름답기만 한 추억으로 남을지는 모르겠다. 나는 수업 시간에 뽀은 말들이나, 식사하거나 함께 길을 걷다가 잡담같이 늘어놓았던 말들, 과제를 통해서 활자로 표현해 놓은 말들보다 훨씬 더 많은 말들을 했다. 다만 소리 내지 않았을 뿐이다. 대부분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을 들었던 것은 나 자신이었고, 나는 내 안에서 논쟁하기도 했다. 아주 약하고, 이기적이고, 편견에 가득 차 있으며,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아집 덩어리를 매일 만난다는 건, 아주 피곤한 일이다. 그 시간들이 어떻게 아름답게만 기억되겠는가.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를 통해 나는 많은 나와 타인의 시간들을 만났다. 나를 나에게 돌려준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에 감사한다.



바람

김소정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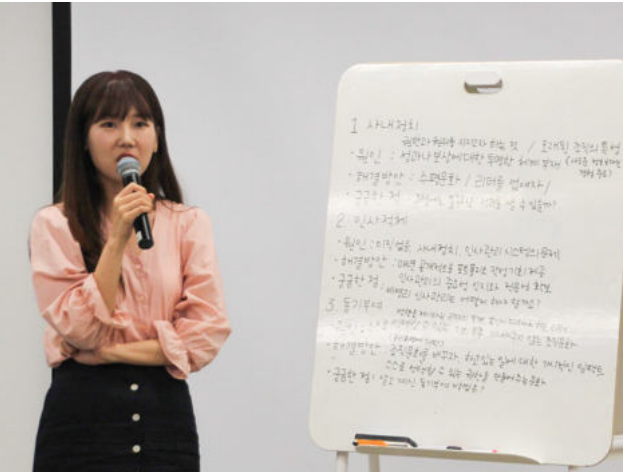


많이 흐린 날로 기억합니다. 면접을 마치고 약속역 계단을 터덜터덜 내려가며 많은 생각이 오갔습니다. 면접 전까지는 분명히 잘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면접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모든 것에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면접을 보신 교수님들 앞에서 뭐든 잘 할 수 있을 것 같이 호기롭게 대답했던 스스로가 조금 뻘뻘스럽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때 ‘과연 내가 이 일정을 잘 따라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불쑥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곧 ‘합격도 안 했는데 뭘...’ 하며 생각을 접었습니다. 얼마 뒤 합격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아! 정말 시작이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곧 입학식에 참여하고 워크숍에 앉아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7개월의 시간이 정말 시쳇말로 순삭(순간삭제)되었습니다. 우스운 이야기지만 ‘이 일정을 잘 따라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 자체가 사치라는 것을 수업이 끝날 즈음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일정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회사 업무를 하면서 수업도 듣고, 프로젝트도 진행하는 과정을 통해 오랜만에 ‘정신없음’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AFA에서의 7개월 간 ‘정신없음’의 중심에는 ‘낯설다’와 ‘새롭다’가 있었습니다. NGO에서 10년간 실무자로 일하면서 최근에는 ‘낯설다’와 ‘새롭다’를 체감할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업무는 이미 많이 익숙해져 있었고, 만나는 사람들의 패턴도 비슷했습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어느 지점에 서 있는지 스스로 돌아볼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왔던대로 가다보면 어느 지점에 도착해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 저에게 비영리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29명의 실무자와의 만남은 낯설고, 새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사회문제에 대한 남다른 열정으로 자신의 몫을 해내는 동기들의 모습 자체가 저에게는 배움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다가가기 어려웠던 순간들도 있었지만, 비영리에서 일하는 고충에 대해 함께 나누고,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며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디인지, 그리고 어디로 가고자 하는지에 대한 스스로의 확신이 조금 더 분명해졌습니다. 또한 대학을 졸업한 이후 들을 기회가 특별히 없었던 다양한 수업을 통해, 그 수업 가운데 쏟아지던 교수님들의 명언들을 통해 나의 모습을 반추하며 반성하기도 하고, 전에는 알지 못하던 새로운 것들을 깨닫기도 했습니다.

‘언제 갈까?’ 생각하던 시간이 어느새 마지막이 되었다니, 마음이 또다시 싱숭생숭해집니다. 그러나 면접을 마치고 나오던 발걸음에 묻어있던 오만가지의 생각과는 결이 다른 싱숭생숭함입니다. 정신없이 달린 7개월 동안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한 낯선 경험을 통해 ‘콧바람’을 실컷 뿜었습니다. 봄바람이 불면 싱숭생숭해지듯, 오랜만에 콧바람이 드니 마음이 싱숭생숭합니다. AFA에서 맺은 소중한 인연들과 앞으로 어떤 관계를 이어갈지, AFA에서 채운 새로운 배움들이 앞으로 어떤 길을 만들어낼지, AFA에서 만난 낯선 경험들이 앞으로 어떤 방향을 일으킬지... 그 바람의 끝에 무엇이 있을지 궁금해지는 요즘입니다.



완성형 셰프로 다듬어지는 시간

김아란 (재)아름다운재단



모집 마감 1분 전, 조마조마한 도전

모집공고를 보고 망설였던 기억이 난다. 마지막 날 1분을 남기고 지원하던 순간, 두근대던 심장의 바운스를 잊을 수 없다. 무언가 도전하고, 배우는 것을 좋아하던 ‘나’의 모습을 잠시나마 찾은 것 같아서였을까.

‘국장’을 맡고 나니, 해야 할 일의 범위와 깊이가 달랐다. 넓은 시각과 긴 호흡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었지만, 시간과 경험, 능력은 부족했다. 그렇게 일 년을 보내니 ‘우울증’이 왔다. ‘과연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 내가 능력이 되는가?’라는 질문에 위축되기 일수였다. 그렇게 자신감도 자존감도 바닥을 치던 순간,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를 만났다.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이 주는 기쁨

하루 10분 나를 위해 쓰기 힘들던 일상에서, 온전히 나를 위한 배움과 성찰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 정말 귀하고 감사했다. 캡스톤 회의로 자정이 넘어 집에 가던 순간도 행복했고, 아이들을 재우고 과제를 위해 밤을 새워도, 부족한 업무를 야근으로 채우던 순간도 기쁘게 맞이할 수 있었다. 그만큼 절박했고, 즐거웠고, 최선을 다했다.



가장 큰 소득은 ‘나’를 다시 찾게 된 것이다. 어떤 것을 좋아하고 잘하는지, 어떤 것이 어렵고 두려운지. 내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왔나 사라지는지, 그런 생각은 어디에서 오는지... 나에 대해 충분히 생각하니 속한 기관으로, 우리 사회로 확장해 볼 수 있었다. 잠시 멈춰야 보이는 것들의 소중함. 운동장 안에서 운동장 밖을 보는 것의 중요함. 상황에 맞춰 나를 변화시키려는 노력 없이 리더가 될 수 없다는 교훈... 잊지 않고자 적어본다.

이제 다시 주방으로, 현장으로...

긴장하며 들어섰던 면접장, 한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 “요리를 가르치려고 할 때, 칼질부터 배워야 하는 사람도 있고 이미 셰프만큼 실력을 가진 사람도 있잖아요.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는 기본기는 있지만 배움을 통해 좀 더 훌륭한 셰프로 성장할 분들을 지원합니다.” 사람에게 투자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비영리의 많은 일은 ‘사람’이 해내기에 어떤 곳보다 사람이 중요하다.



그런 ‘사람’에게 투자한다는 것의 의미를 알게 해 준 7개월의 배움과 성찰, 웃음과 눈물을 잊지 않고 이제 ‘완성형 셰프’의 길을 가보려고 한다. 서툴고 부족하지만, 다시 칼을 들어 맛있는 요리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멋진 음식으로 누군가를 감동시킬 수 있기를, 그 과정에 내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누군가의 도움과 배려로 가능했던 일이기에,

Special Thanks To

좋은 환경과 배움을 위해 정성을 다해주신 교수님들, 아산나눔재단 운영팀, 함께한 동기들 그리고 매 순간 힘이 돼준 우리 3조에게 감사를 전한다. 엄마의 빈자리에도 씩씩하게 자라준 주원이 예원이, 늘 ‘멋있다’고 응원해준 남편, ‘걱정 말고 재밌게 공부하라’며 두 아이 육아를 전담해준 나의 가장 큰 지지자 친정엄마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사랑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빈자리를 잘 메꿔준 아름다운재단 나눔사업국 동료들, 국장들 그리고 소중한 기회를 허락해주신 총장님께 감사를 전한다.

힘들고 아프지만 뭉근하고 뜨뜻해지는 중입니다

김아영 옥스팜 코리아



“요즘 저는 빈 깡통 같습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다고 생각했고, 그럴 수 있다고 믿었고, 그래서 맡겨진 이것저것들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다 보니 어느새 비영리 12년 차. 내가 하는 일은 당연히 잘해야 하고, 남들이 하는 일도 잘하게 해야 하는 그 자리가 어느 순간 너무 무겁게 느껴지던 때에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를 알게 됐다. 그래서 2019년이 오기만을 기다렸다가 더는 참지 못하고 1월에 메일을 썼다. 8기 공고는 언제 나느냐고, 나는 뭘 준비하고 있으면 좋으냐고. 합격 불합격은 생각도 못 하고 무턱대고 나의 굳은 의지를 보여줄 ‘요즘 저는 빈 깡통 같습니다’로 시작하는 절박한 자기소개서부터 쓰기 시작했다.

“내가 이걸 왜 한다고 해가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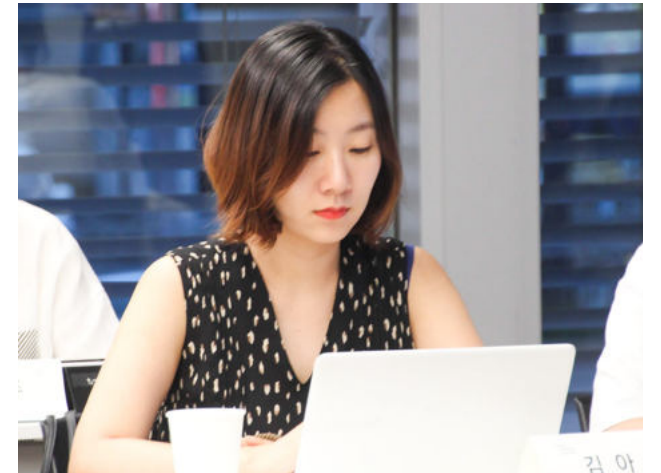
절박함 때문이었을까, 귀한 기회를 얻게 되어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8기가 되었다. 화, 목요일이면 정신없이 달려가 수업을 듣고, 밤늦게까지 토론을 하고, 주말이면 과제를 하며 봄과 여름을 보내고 나니 그때 즈음부터 몸과 마음에 부하가 걸리기 시작했다. 수업에 늦을까 버스와 지하철을 종종거리며 바뀔 때도, 남편은 TV보고 노는 주말에 혼자 방에 앉아 8시간씩 과제를 할 때도, 눈이 빠지게 해외 기관을 조사할 때에도, 한여름 김스를 하고 절뚝이며 회사와 약속역을 오가면서도 못한다고 할 수가 없었다.

고갈되는 것이 싫어서 시작했는데, 체력도 열정도 더 바닥을 치는 것 같은 기분. 그래서 구시렁거렸다. “내가 이걸 왜 한다고 해가지고...” 그리고 11월만 바라보며 버텼다.

“아직도 미완성이지만, 감사합니다”

11월이 왔고, 이제 수료인데 빈 깡통같던 나는 지금 어떤지 돌아본다. 올 봄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를 시작할 때에는 이 과정만 잘 끝내고 나면, 그동안 소진되어 밀천이 드러날 것 같던 내 열정과 지식이 그득히 채워지는 경험을 할 줄 알았는데 실은 그렇지 않다. 나는 여전히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아카데미에서도 캡스톤 프로젝트처럼 미완성이다. 오히려 전에는 비어 있었는데도 몰랐던 구멍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채워가야 할 구멍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아프게 마주 보는 중이다. 그러나 그 아픈 데가 묘하게 뭉근하고 뜨뜻하다고 느끼는 건 아마도 채워지고 있다는 증거인 것 같다.

깊이와 충만함을 동경하게 만드신 모든 수업의 교수님들과 최고의 섬김을 보여주신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운영팀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 특별히 이미 다양한 자리에서 누구보다 치열하게 세상을 바꾸고 있는 자랑스럽고 존경스러운 AFA 8기 동기들과 매 순간 나를 돌아보게 하고, 더 나아지고 싶게 만들어준 3조 팀원들에게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고 말하고 싶다. 이 과정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할 수 있다고 응원해주고 지원해준 남편과 가족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Before & After!

그리고 그 점점의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김태준 은평종합사회복지관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는 여러모로 굉장히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니다. 교육 커리큘럼과 교육의 질은 물론 저명하신 교수님들의 수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것도 영광이었으며, 다양한 사회혁신 필드트립과 비영리조직의 중간관리자로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어디서도 쉽게 경험하기 어려운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캡스톤 모듈과 해외방문연구조사로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은 많은 것을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였으며, 우리가 선정한 주제는 물론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전략, 인적자원, 마케팅, 재무회계, 리더십, 사회혁신, 캡스톤 모듈에서 다뤄진 사람과 관계, 기술, 정보, 문화 등에 대해 새롭게 깊이 있는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비영리조직의 중간관리자로서 그동안 알고 경험하였던 것들에 대한 정리와 함께 앞으로의 지향점을 제시받을 수 있는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비단 한 예로 요즘 제가 사용하는 단어들이 전과 달리 '스콥(scope)을 줄이자', '성공의 정의', '우리가 버려야 할 것', '환경분석', '혁신', '리더의 역할' 등의 단어를 사용하고, 실제 논의 속에 적용하여 긍정적 성과를 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아쉬운 것은 당연히 많은 것을 배우고, 자극 받았기에 많은 실천과 적용을 위해 노력했어야 하는데 일과 가정, 아카데미를 병행하는 것에서 오는 시간과 체력의 한계로 인해 더 집중하고 몰입하지 못했던 것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하지만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8기를 수료한 이후에도 저는 비영리조직에서 일하는 한 사람으로서 지속해서 배웠던 여러 가치를 실천하고 적용해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특별한 변화의 포인트들이 있을 텐데, 저에게는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가 그런 변화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막 수료의 시기이기에 제가 미래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을지 몰라 다소 자신이 없기도 하지만...

수료를 앞두고 수기를 작성하면서 저 스스로와 이 글을 읽어 주시는 분들께 다짐해봅니다. 앞으로 저는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이전의 저와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이후의 저로 다르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실천할 것들요. 함께 한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8기분들께 감사드리며, 무엇보다 많은 것을 챙겨주신 3조 조원분들께 감사합니다. 아울러 이렇게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이게, 또 보이지 않게 많은 도움을 주신 아산나눔재단 운영팀에 감사드립니다.



사람을 세우고 사랑을 나눕니다

김형수 지구촌사회복지재단



직장에서 거취의 변화가 예상되던 올해 초,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접수 공고가 나온 후부터 너무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에 대한 경쟁률이 치열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 붙을 수 있을지, 붙고 나도 교육 과정이 엄청 힘들다는데 내가 해낼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모두 다 감당할 수 있을지도 걱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놓고 떨어지는 게 나을지, 놓지도 않고 ‘어차피 못 먹을 떡이었어’라며 자기 최면 걸고 살아가는 게 나을지 고민하던 중, 서류 마감 전, 일주일이 되었고 수많은 고민을 뒤로한 채 서류를 넣었습니다.

1차 서류 합격 (잉? 우리 재단 한 번도 안 넣어서 뽑아줬나 보네)
2차 서류 합격 (응?? 이번에 지원자가 미달인가...)
3차 면접 후 (거봐... 이게 내 수준이지... 어휴... 넣지나 말걸...)
면접 합격 통보 후 (ㅋㅋㅋㅋㅋㅋ 아산 왜 이러지??)

약 한 달 반 정도의 시간 동안 경험했던 바보 같은 감정의 변화, 지금 생각해도 참 감사한 기억과 행운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마음을 더 굳건히 만들고 싶었고, 이를 구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키우고 싶었습니다.

7개월의 과정을 통해 저 자신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비슷한 고민의 순간을 이겨낸 교수님들의 삶을 느낄 수 있었고 유사한 고민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TV에서나 보던 선진 기업 문화를 볼 수 있었고, 비영리라서 안되는 것은 없다는 도전도 받았습니다.

‘운동장 밖에서 뛰어라’ 캡스톤 수업을 통해 끊임없이 들었던 한 문장만은 잊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마주할 모든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끊임없이 뛰어 들고 뛰어나가려 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조금 더 나은 세상에서 약간 더 멋있게, 사회에서 쓰임 받게 살고 있지 않을까 기대하며 두 번 다시 경험할 수 없을 값진 학업과 성찰의 시간을 허락해 준 아산나눔재단과 지구촌사회복지재단, 그리고 우리 여왕님과 공주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맞아서

남성주 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었다.

20년 간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10년을 부장과 관장으로 일하다 보니, 뭔가 멈춘 듯했다. 리더에게 필요한 조직관리, 리더십 등을 간헐적으로 공부하다보니 체계가 잡히지 않아 답답했다. 이에 대한 타개책으로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를 수료하신 분들의 지지와 추천이 있어 지원하였다. 모든 과정의 자료를 다 섭렵하며 성장하리라 마음먹었던 다짐은 매주 화, 목요일 9시까지 수업 듣고 11시까지 캡스톤 하면서 체력전이 되었고 팀원들과 지지고 볶으면서 때로는 혼란스럽고 때로는 재미있고, 때로는 깨달음의 시간이 되었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교육을 받으면서 내가 정말 우물 안의 개구리였고, 내 지식이 단선적이고 단편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략 수업을 통해 미션, 비전, 그리고 전략 수립의 체계를 배울 수 있었다. 마침 일하고 있는 복지관에서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시기와 맞물려 유익한 시간이었다. 리더십 모듈 수업은 좀 과장되게 표현하자면 리더십 부흥회 같았다. 교수님의 강의도 모습도 그랬지만 리더십을 기술이 아닌 감성으로 접근하여 어쩌면 이미 알고 있고 심지어 복지관에서 실천하고 있는 것들도 새롭게 느껴졌다. 사회혁신 모듈은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과 영리 기업들의 변화 모습을 보면서 비영리가 나가야 할 지점을

어설프게나마 맛보는 시간이었다. 툭킷, 디자인씽킹 등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얼마나 많은 솔루션이 있는지 알게 되는 시간이었다. 재무회계는 기관을 운영함에 있어 재정의 흐름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배우는 소중한 기회였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공부를 하면서 가장 애착이 가는 것은 역시 캡스톤이다. 캡스톤, 가장 긴 과정이었고 수업 시간 외에도 팀 활동의 키가 되는 수업이었다.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리더십을 훈습 할 수 있도록 한 과정은 그 체계성, 방법의 다양성, 그리고 내용의 깊이가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것이었다.

교수님의 의도 때문인지는 몰라도 6명의 구성원들과 갈등과 화합과 협동 등을 특정한 리더 없이 실천하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어렵고 힘든 과정이었다. 왜 힘들까? 생각해보면 군집 동물인 인간에게 자연스레 발생하는 집단 내 위계, 역할 구분을 초반에 인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나타나는 다양한 역동과 제한된 시간 내 우수한 사업수행을 빌미로 팀원들을 극한의 상황으로 밀어 넣는 것 그대로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리더십 본연의 모습을 깨닫도록 한 게 아닌가 생각된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를 하면서 내가 얻은 가장 크고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고독하게 등을 보이고 걸어가는 자로서 묵묵함, 이상(기대)과 현실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자세, 그리고 나 자신을 겸손히 만들어 갈 수 있는 마음... 무엇보다도 오랜 기간 같은 고민을 하는 동기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는 점이 아닐까?

관장의 오랜 교육으로 더욱 사업에 힘을 기울여 준 직원들에게 감사하고, 매주 화, 목요일 밤 12시에 귀가하는 남편 걱정해서 보약을 지어준 아내와 아들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끝으로 세심한 배려가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신 박지훈 팀장님과 백민경 매니저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놓치지 않을거예요!

박정민 서울문화재단



조용한 생활의 혁명을 위한 아름다운가게 활동가 10년.
지난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내가 기대한 것보다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고, 노력한만큼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지만 어느 날 문득 뒤를 돌아보니 '지금 나는 후배들에게 내가 경험한 변화를 보여주는 선배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가치를 위해 모인 후배들에게 가슴을 뛰게 만드는 선배가 되고 싶었는데, 막상 주변을 둘러보니 어쩔 수 없이 책상 앞에서 보고서를 써야 하는 무표정한 얼굴들이 가득했습니다.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후배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어려운 점들을 물어보기도 하고 앞으로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해 개인적으로 고민을 들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이외에 변화에 대해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기에는 역량의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뭔가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두드림의 시작은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의 문으로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보고 싶다는 도전은 감사하게도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8기'로 환영 받았습니다. 주변의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셨지만 사실 저의 새로운 도전을 모두가 응원해준 건 아니었습니다. '변화'라는 단어 때문이었겠죠. 그리고 다시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만들고자 하는 변화가 다른 누군가를 불편하게 할 수도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변화에 도전해야 할까?' 하지만 저는 이미 변화의 필요성을 느꼈고 도전엔 어려움 따르기에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와 함께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도전에 대한 설렘과 변화를 만들겠다는 책임감으로 달려온 7개월, 학업과 일 모든 것을 병행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저에겐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비영리 활동가로 숨 가쁘게 달려오며 그 안에서 느꼈던 기타 분야에 대한 지식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었고, 더불어 내가 경험하지 못한 다른 조직의 사람들과 함께 부딪치며 비영리 생태계의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우리(비영리단체)는 잘 하는 것보다 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너무나 많은 집중을 하고 있고, 우리의 상황을 들여다보려고 하기보다 다른 사람과 조직이 하는 일에 대해 더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15년 이상된 비영리 단체라면, 변화를 위해 시작해야 할 일은 다른 단체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내부 참여자들에게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 내부 참가자들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 만들어 갈지 고민하고 이야기 나누며 정리해 가야 한다는 사실은 저의 도전의 시작점이 된 문제의 답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바탕에는 기본적인 조직 운영과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하겠죠)

모두가 쉽게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변화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 보다 가까이 있다'고... 그러나 변화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이 말에 '확신'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변화에 대한 어렵פות한 희망만을 가지고 있던 저에게 지난 10년의 활동 경험을 잘 다져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준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참 고맙습니다. 또다시 선택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놓치지 않을 거예요!

2019년 - AFA = 0

변현주 사회복지법인 열매나눔재단



어느덧 수료 수기를 써야 하는 시간이 왔다니 정말 믿기지 않네요.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를 지원할 때 정말 오랜만에 설렘을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지원서 파일을 찾아보니 그때의 감정이 다시 느껴졌어요. 정말 참여하고 싶었던 교육이었고, 떨리는 마음으로 면접을 보러 간 기억도 생생합니다. 변화와 자극이 필요하던 시기에 저에게 꼭 필요했던 교육을 참여하게 되어 정말 감사했습니다. 2019년에 제일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물론 그 생각은 변함 없습니다.

봄에 시작한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가 여름, 가을을 거쳐 겨울이 되어 마무리 하게 되었습니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와 8기 동기 선생님들과 2019년의 4계절을 같이 보내게 되었어요. 7개월 동안 울고 웃었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정말 힘들었던 시간이었는데 끝이 나긴 하는군요. 이 글을 쓰는 지금도 사실 실감이 잘 나지 않지만, 왠지 모르게 시원섭섭합니다.

입학식 날, 교수님들이 녹록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던 말씀을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었는데, 아카데미를 시작한 지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서 그 말이 무슨 뜻이었는지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매우! 녹록지 않은 나날들이었습니다. 저질 체력(?)으로 업무를 마치고 수업을 듣는 것만으로도 절대 쉽지 않았는데, 캡스톤으로 프로젝트까지 해야 한다니요...



평소에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일들과 성찰의 연속이었습니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가 아니면 어디서 이렇게 해볼 수 있겠어요. 특히 김상범 교수님의 '운동장 밖에서 관찰하라'는 말씀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잊지 않고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동기 선생님들도 학습의 대상이었습니다. 한 분, 한 분을 보면서 많이 배우고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7개월 동안의 배움을 정리하고 조직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남았네요. 아카데미에서 배운 것들을 야무지게 적용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쉽게 좌절하지 않고 도전하는 용기도 필요할 것 같아요.

저에게 터닝포인트가 되었던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의 7개월을 디딤돌 삼아 조직과 함께 성장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에 지원했던 첫 마음 또한 잊지 않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비영리 실무자에게 이렇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해주는 아산나눔재단, 고맙습니다. 그리고 교육 준비로 제일 고생이 많으셨던 백민경 매니저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말씀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무한대 8기 선생님들과 함께여서 더 감사했습니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를 수료한 우리 모두 존경해요. 이제 아파하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모두 파이팅입니다! 동문회에서 만나요.

천 번 듣는 것보다 한번 느껴라

삼부 오너르자르갈 다모의료&문화관광 협동조합



이번 교육과정을 신청하면서 될 거란 기대가 아예 없었는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첫 워크숍을 가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어려운 과정인 것을 알게 되어 긴장도 했고, 오랜 경험을 가진 다양한 분야의 중간관리자들과 과정을 함께하는게 너무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김상범 교수님의 첫인상이 강력하게 느껴져서 무척 당황했습니다.

한국에 정착해서 여러 활동과 교육을 받았지만 아카데미 교육 강도의 1/10도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포기하려는 마음이 든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기관 동료들이 열심히 응원해주었고, 레고레고 5조 팀 분들 또한 많이 도와주시고 이해해주셔서 지금 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시간은 참 빠르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교육과정이 끝난다니 그동안 좀 더 노력했으면 더 잘 할 수 있었을텐데 하는 아쉬움도 듭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을 돌아 보면 저한테 꽤 많은 변화가 생긴 것 같습니다. 우선 교육과정 중 한국 국적을 취득했고, 아카데미에서 배우고 느낀 부분을 1%라도 공유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협동조합 이주여성들도 조금씩 생각을 바꾸고 열심히 하려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익숙함에 적응되어있어 운동장 밖에서 다양한 관점으로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깊은 생각 없이 바로 말했던 부분도 반성하기도 했습니다. 워낙 이런 쪽으로 경험이 없고, 다문화 예술문화 쪽으로만 해 오다 보니 숙제부터 시작해서 글 쓰는 것, 문법도 엉망이어서 많이 부끄러웠는데 매니저님도, 멘토님도, 동료분들도, 제 실수를 많이 봐주시고 응원해주셔서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8기 동기들과 아산나눔재단 매니저님과 팀장님, 교수님들께 너무나 감사해서 지금 하는 일을 열심히 잘 하도록 노력해서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교육과정이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기수 및 동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제 진심을 전달하겠습니다. 마지막 발표의 결과가 어떻게 되건 모두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와 격려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앞으로고 모두 화이팅입니다. 우리 8기가 최고입니다.



도전을 멈추지 않는 우리는 언제나 “청춘”

서미연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복지 현장에 나온 그 순간부터 나는 항상 내 일이 그 어떤 일보다 가치 있는 일이라고 자신 있게 말한다. 남들과 비교하면 너무 소소하고, 완벽하지도 않을지언정 복지관이라는 곳에서 지역의 사람들과 함께 변화를 꿈꾸며 동행하는 나의 일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그 일을 할 수 있음에, 또 그 일을 하며 현재의 나를 더 나은 미래의 나로 만들어갈 수 있음에 감사하다.

그렇게 지난 13년 동안 나는 사회복지사로 참 많은 일을 재미 있게, 지치지 않고 해왔다. 누구보다 새로움을 쫓고, 도전하기를, 변화하기를 즐겨한다고 인정받으며 열정적으로 일했다. 하지만 팀장이 되고, 과장이 되며 예전보다 권한은 많아졌지만 아이러니 하게도 내가 할 수 없는 일 역시 많아진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기관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속에 현명하게, 또 정의로써 포지셔닝하는 것이 어려웠고, 나 혼자만 생각해서는, 또 나 혼자로는 안 되는 상황들 앞에 놓이기 일쑤였다. 그 모든 고민의 본질은 대개 내가 하는 일, 즉 '업무'에 관련된 것이라기보다 '사람'에 관한 부분이었다. 작년, 기관의 여러 좋지 않은 상황들 속에 그 고민의 크기가 커질 만큼 커져 '이제 일을 그만둬야 하나'라는 생각을 하던 즈음, 그만둘 때 그만두더라도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1년은 해보고 그만두라는 한 선배의 말이 여기까지 오게 된 계기가 되었다.

아직도 떨림이 남아있는 4월 6일 최종면접부터 얼마 전 눈물이 눈 밑까지 차올랐던 11월 7일 마지막 수업까지 나에게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는 이성보다 감성을 먼저 경험하는 시간이었다. 물론 전략, 리더십, 인적 자원, 마케팅, 재무회계, 사회혁신, 문제해결, 캡스톤까지 빼곡히 남은 복습 노트만큼 너무나 많은 지식과 배움을 얻었다. 캡스톤 2차 발표 때, 너무나 동경하던 분들에게 큰 칭찬을 받았고, 오랫동안 먼발치에서 존경해오던 한 교수님과 친분을 쌓는 계기도 가졌다. 나의 성장, 조직의 성장, 사회의 성장을 모두 이루자며 조 이름을 따따블이라고 짓고 청년 느린 학습자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했던 5명의 동료들과 헤아릴 수 없이 값진 인연도 만들었다. 이 모든 과정이 너무나 큰 기쁨이고, 영광이다.

하지만 수료 수기를 적으며 나는 나 자신에게 묻는다. 나는 지난 7개월 동안 얼마나 나아졌는지,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까지 오게 했던 그 수 많은 고민에 답을 얻었는지, 리더로서 '일'과 '사람'에 대해 나 자신을 악기처럼 다룰 수 있게 되었는지 묻고 또 묻는다. 안타깝게도 지금의 나는 자신 있게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나는 오늘도 전쟁터 같은 운동장 한가운데 서 있고, 여전히 사람 때문에 쉽지 않은 나날들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하나는 달라졌는데 그건 바로 '나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그 사람들이 아프다'는 것이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가 아니었으면 나는 그 사람들을 등지고 그들 때문에 아픈 나 자신을 향해 있었을 테지만 지금의 나는 그 사람들을 향해 서 있고 그들에게 한발, 한발 가까이 걸어가고 있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는 나에게 대한, 사람에 대한 용기를 주었다.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일'도 '사람'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한 동기들과 교수님들! 늘 따뜻함으로 대해주신 아산나눔재단 운영진분들께 감사하다. 배려와 응원으로

지켜봐 준 유명환 부장님과 사회복지부 식구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수업 듣는 게 힘들다고 투정 부릴 때마다 초심을 찾으라며 따끔한 지지를 보내준 소울메이트 꺾이와 일주일에 이들은 교육에, 나머지 날들은 야근으로 늘 퇴근이 늦었던 7개월간 다은이, 태은이를 사랑으로 돌봐주신 존경하는 우리 엄마께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다.



나를 살게 해 준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송부연 고앤두 아카데미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의 합격 메일을 받은 그 날을 기억합니다. 간절히 원하던 것을 얻게 된 그런 기분이었지요.

작년 그맘 때, 불러온 배를 안으며 '내년에는 꼭 해야지'라고 마음먹었던 제가 드디어 합격 소식을 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 1년 사이에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 놓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2018년 7월에 둘째를 낳고 몸이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기침도 오래 하고 몸이 많이 부었습니다. 그저 여름에 산후조리를 한 탓으로만 여겼지요. 따뜻하게 지내야 할 산모가 아이 때문에 24시간 종일 에어컨을 틀어 놓은 탓이라 여기며 대수롭지 않게 지나쳤지요. 3개월이 지나 복직할 무렵 눕지 못할 정도로 기침이 나고 숨이 막혀 병원을 찾았습니다. 몇 가지 검사 후 저는 응급으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확장성 심근병증'이라는 희귀난치병이 저의 진단명이었습니다. 둘째 아이의 백일을 코앞에 두고 입원을 하게 되니 매일 밤이 눈물 바람이었습니다. 예후가 좋지 않은 병이라 두렵기도 했습니다. 2달 간 병가를 낼 정도로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그러던 제가 8기에 도전을 하였습니다.

저에게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는 죽기 전에 꼭 해 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비영리기관의 종사자가 지닌 잠재된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고 그것이 발현될 수 있도록 투자해주는 교육 과정을 경험해 보고 싶었고, 두 번째 이유 'N_SQUARE'라는 동문 모임의 에너지와 역동을 직접 경험해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행운이 저에게 찾아왔고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13년 동안 처음으로 비영리기관의 종사자로서 존중받고 인정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지난 7개월을 돌이켜 보면 하루도 그러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내가 사회복지사인 것이 정말로 자랑스러웠습니다.

비영리기관의 중간관리자들에게 벅찬 경험을 안겨 준 아산나눔재단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애정 하는 우리 8기 동기들, 특히 5조 레고레고 조원들에게도 저의 인생에 멋진 장면들을 함께 해주어 고맙다는 말을 전합니다.

좀 더 멋진 사회복지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해 주신 양가 식구들, '사랑해'라는 말로 한없이 부족한 훈민남매, 그리고 영원한 내 친구 이사야에게도 온 맘을 다해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최고의 변화와 삶은 아주 작은 습관의 변화로부터 시작 된다

신형란 유성구청소년수련관



졸업만 잘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어렵다는 이 과정을 겁도 없이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의 성실성이라면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면서, 일주일에 두 번 서울과 대전을 오가면서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에 이 수업에 또 올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밤늦게 막차 타고 내려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조원들은 아직 미팅 중인데 먼저 일어나야 하는 미안함과 피곤함과 사무실 업무로 숙제나 프로젝트를 온전히 백 퍼센트 쏟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

수업이 너무 좋았고 동기들이 있었기에 그 자리에 늘 있었습니다.

4월 워크숍을 시작으로 바쁘게 달려온 하루하루가 마무리되고 이제 수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과정 하나하나 그동안의 일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주말 부부에 아들은 고3이고, 직장생활에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과정까지 쉽지는 않았지만 생각해보면 그래도 아들과 한 발짝 떨어져 관심을 좀 덜 가졌던 게 약이 됐던 거 같습니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에서의 7개월은 교수님들 수업을 들으면서 새로운 것도 많이 알게된 시간이기도 했지만, 전체 적으로 내가 기관에서 중간 리더자로 어떻게 해야 할지 밑에 직원들한테는 어떻게 해야할 지를 많이 배우고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피곤했지만, 수업이 좋아서 졸지 않고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해외방문연구조사 기회도 참으로 좋았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아산나눔재단 관계자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주 작은 변화는 시작됐으니 아산에서 공부한 것을 경험으로 앞으로 더 좋은 습관을 많이 쌓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리더십이란 응변의 예술이다

유지원 서울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



‘리더십이란 응변의 예술이다’라는 그 말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고 몸으로 느낀 한해였습니다. 저는 자전거를 타고 여행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5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두에서 50명을 이끌고 자전거 길을 안내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지난 4년 동안 날씨가 다 좋았는데 올해는 태풍이 딱!! 제대로 와주어서 비 때문에 일정을 변경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바람 때문에 속도도 안 나고 계획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을 때 순간순간 가장 좋은 개입과 선택을 해야 했고 다른 스태프들의 이야기를 듣지만, 결정과 책임은 오롯이 저의 몫이었습니다.

이 긴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기간 동안 무엇을 얻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몇 마디로 정의하기 어렵습니다. 마지막 수업에 항상 우리에게 질문하시던 ‘성공의 정의’를 교수님께 반문했을 때 ‘우리들의 성장’이라는 아주 당연하고 싱거운 대답이 기억에 남습니다. 저도 이 과정을 통해 조금은 성장했다고 아주 당연하고 싱겁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성공은 뭘까, 그리고 그 성공은 반드시 정의되어야 하나, 정의된 것만 성공일까? 과정이 진행될수록 단어와 현상 뒤에 숨겨진 많은 의미를 찾게 하는 캡스톤은 항상 저를 약간의 흥분과 긴장감, 생각의 즐거움을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대학 불교 철학 시간에 들던 ‘훈습’이란 단어를 교수님께서 꺼냈을 때부터요.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잃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 교회 성경학교에 다녀오면 몇 일 동안은 베드로처럼 살겠다고 하다가도 다음주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제 모습처럼요. 마찬가지로 몇 번의 강의와 그럴듯한 말로 생겨나는 성장과 리더십도 결국은 오래가지 못할 거라 생각합니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와 캡스톤은 과업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 특히 저와 동료들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나도 모르게 몸에 리더십이라는 향기가 배는 긴 인내와 훈습의 과정이었기에 오랫동안 저에게 남아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바쁘고 힘든 한 해였는데 많은 분들이 있어 이 과정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매시간 즐겁고 유익한 수업을 제공해주신 교수님들과 수강생 한 명 한 명 너무 많이 생각해 주셔서 ‘진짜 이제 못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손 내밀어주시고 이런 성장의 기회를 주신 아산나눔재단 사회변화교육팀, 저의 빈 자리를 채워 준 우리 회사 내외 동료들, 탐골 전문가가 된 우리 그릿조와 8기 동기들 늘 지지해주고 믿어주는 가족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부족함에 갇히지 않는 리더십의 새로운 관점이 시작되었다

윤효주 춘천사회혁신센터



처음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를 신청할 때 기대한 것은 내가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이었다. 부족한 분야, 부족한 관점을 채우고 판단의 기준을 세워 내 스스로 갇혀 있는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는 것을 목표로 새로운 조직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4월부터 진행된 모듈별 교육과 캡스톤을 거치면서 나는 왜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가 비영리 MBA 과정을 하면서 '리더십'을 말하는가를 내 방식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생각해보면 나 혼자 하는 일은 없다. 교육을 참여하는 것도 준비하는 사람, 학생, 교수의 상호작용 속에서 매 순간 변하는데, 하물며 비영리 분야에서 일이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없이는 존재하지 않으며 순간은 늘 변하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를 신청할 때 나는 그 관계와 순간들 속에서 내가 가진 아이디어라는 정형화된 정답을 통해 효과를 보고 싶어 했다. 그러나 모든 상황과 순간은 변하며, 각각의 상황에서 일의 효과를 내기 위해 구성원으로서 내가 해야 하는 것은 일마다의 성공의 개념을 정리해내고, 그것을 준비하는 논의 과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살펴보면서 (모듈을 통해 배운 지식을 활용하여) 그 상황마다의 필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



그 유연함이 아직까지는 혼습 과정이지만 이것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든든한 자산이자 기준점이 되어 줄 것이다.

그리고 나의 부족함이란 부분에서 동기들을 통해 배운 점 또한 많았다. 내가 가진 리더십 유형의 한계가 집단을 통해 어떻게 보완될 수 있는지, 그 집단의 역동이 내가 생각하지 못한 다른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하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었다. 더불어 바쁜 와중에 생일을 챙기고, 명절에 멋진 아이디어 깜짝 선물을 하고, 출장 혹은 연수를 다녀와서 아기자기하게 선물을 나누고, 교수님들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관련된 사이트와 영상을 찾아 공유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조직 안에서 리더십의 씨앗은 이런 말 없는 행동에서 시작된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 8기 모든 동기들에게 정말 고맙고 우리 8기가 정말 좋다.

배움의 과정을 기획하고, 매 과정을 함께하고 애써주신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운영팀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과정을 해본 사람만이 아는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팀의 진정성과 열정은 아카데미의 또 하나의 감동이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과제 이외에 각 모듈별로 제시해주신 책이나 자료들을 많이 읽지 못했다. 이번의 배움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읽기'를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방법을 계획하고, 만들어나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혼습의 연장선에서 도전할 것이다. 끝나도 끝나지 않는다.

결석을 한번도 안 할 거라곤 생각도 못했다!

이미옥 (재)아름다운커피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면접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안되면 참 아쉽겠다는 생각으로 터덜터덜 걸었던 기억이 생생하다. 7개월의 과정이 너무나 갑작스럽게 끝나버리고 있어 벌써 아쉽다. 앞으로 이 허전함을 무엇으로 채울까 하는 걱정도 살짝 든다. 같은 팀, 같은 8기 멤버들과 좀 친해진 거 같은 시점에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가 끝나가고 있다. 한 번쯤 공결권을 사용해 보겠거니 했는데 일정들을 미루고 바꾸고 하다 보니 마지막 캡스톤 수업까지 꼭 결석의 기회를 잡지 못했다.

전략, 재무회계, 인적 자원, 마케팅, 사회혁신, 리더십, 문제해결, 캡스톤 모듈까지 MBA 과정을 비영리 관점에서 접근하고 생각해보고 싶다는 내 바람은 기대했던 것 보다 훨씬 의미 있고 값진 시간이었다. 완전히 새로운 내용을 접하기도 하고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다루는 경우도 있었는데 각각 흩어진 것들을 함께 연결하며 생각하고 고민하다 보니 나에게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것들이 많았다. 엄청난 과제와 업무 일정이 한꺼번에 몰려오던 4월과 5월이 가장 쉽지 않은 시기였다. 7월 즈음엔 날씨도 더운 데다 동기들도 모두 지치고 힘겨워 보이는 시간을 겨우겨우 넘긴 것 같다.

캡스톤 1차 발표 때 심사위원 교수님들께 엄청 깨지고 나서 몇 주간 새로운 주제의 방향을 제대로 잡기 어려웠는데, 2차 발표에서도 생각처럼 우리 팀의 주제를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게 쉽지 않았다. 낯선 여섯 명이 한 팀이 되어 모두가 잘 알지 못하는 주제를 정해 프로젝트를 만들고 목표와 방향을 협의하고 실행해 나간다는 게 이렇게 어렵고도 낯선 과정일 줄은 정말 몰랐다. 서로 돌아가며 리더가 되고 팔로워가 되는 논의 과정에서 누군가 깃발을 들고 확 끌어당기지 않으면 지지부진해지는 나날들의 연속, 각자 서로 다른 업무 스케줄과 개인 사정들을 봐줘 가며 내 맘 같지 않게 흘러가는 속도와 방향들 때문에 애태우다 욕하다 했던 순간들이 있었다. 그리고 어느 때 인가부터 상황을 품는다는 것에 대해 나 스스로 도전하도록 독려하기 시작했다.

해외방문연구조사에서 팀 동료들과 해외 기관의 사람들을 만나 프로젝트 주제에 대해 몇 시간씩 이야기꽃을 피우던 시간과 그 느낌들은 다시 경험하기 어려운 소중한 기회였다. 내가 생각하는 세상의 사회 문제들과는 다른 측면, 다른 관점과 모습으로 접근하고 해결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고, 낯선 나라 사람들로 부터 받은 따뜻한 환대, 서로 다른 여섯 명이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만들며 함께 여행한 이 경험이 새삼 좋았구나 싶다.

8기 기장으로 덩석 나설 수 있었던 용기는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7개월의 이러한 시간과 경험, 사람들이 나의 현재와 앞으로 삶에 생각보다 큰 의미를 줄 거라는 기대 덕분에 아니었을까 싶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서영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봄의 초입,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의 면접을 보고 난 후 정신 없이 나오며 본능적으로 내년을 기약해야 함을 느꼈다. 면접관의 질문에 '저렇게 답변을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에 나의 준비가 부족함을 느꼈고, 짧은 면접 시간에도 생각의 다양성을 배울 수 있었다. 그리고 나는 다음 해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8기가 되었다. NGO 경력 15년이 넘었지만, 새로운 배움과 성장 앞에 봄의 새싹처럼 신입이었다.

다양한 분야에 몸담고 있는 동기생들과 수업을 듣고 함께 과제를 해나가며 한 주 한 주 시간이 흘러갔다. 여름의 짙은 녹색과 태양의 열기처럼 수업이 진행될수록 서로를 알아가고, 자아 성찰의 시간이 많아졌다. 하지만 생각의 다름, 그리고 무엇인가 이뤄내고자 하는 열정의 다름, 다름의 차이를 느끼고 인정하면서 가는 것이 힘들고 지칠 때가 수시로 찾아왔다. 그럴 때마다 간단하게 리더십 성찰 일기를 썼고, 이 무렵 나의 일기장엔 '발표 과제로 인해 마음이 무겁다. 급한 마음에 조원들을 재촉하기에도 부담이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지켜보자니 인내력이 부족하다. 전략적인 설득으로 상황에 맞는 개입을 해야 하는데 잘 안된다' 등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교육받는 동안 썼던 성찰 일기의 제목을 살펴보면, 『'평등한 위치에서', '인내심', '이서영 브랜드', '선택과 집중', '스스로 다스리기', '충전', '작은 차이', '짧은 시간',

'습관', '또 그렇게 시간은', '내면의 힘', '올드 파워 뉴 파워', '무임승차', '번 아웃', '적절한 조화', '배움은 성장을 낳고', '난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나', '사람은 자기중심적이다'. '안 하는 사람은 끝까지 안 하지만, 못하는 사람은 언젠가 해낼 수도 있다', '상황을 품는 힘』 이러한 희로애락의 글들이 적혀있다. 여러 교육을 통한 배움과 시간적 한계 그리고 관계의 갈등 속에서 나름대로 찾은 해답은 내가 할 수 있는 역량과 자원을 통해 네트워킹하고, 좀 더 술선수범하는 모습이였다.

마음이 요동칠 무렵 계절은 가을로 바뀌고 다른 환경에서 과제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 바로 프로젝트의 문제해결을 위한 해외연수였다. 마음의 조바심을 버리고 때로는 포기라는 선택과 직접 뛰는 선수에서 벗어나 축구장 밖에서 바라보는 것까지 좀 더 나의 리더십의 스펙트럼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겨울의 본격적인 추위 앞에 교육은 끝을 향해 달려갔다. 한 사람을



만나면 사계절을 겪어 보라고 했는데, 아카데미 수업을 듣는 동안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을 함께 보냈다. 이론적 부분과 실제 실행되는 프로젝트 그리고 나의 일에서 사계절처럼 변화하는 마음속 갈등과 기대, 때로는 포기가 교육과정과 일하는 나의 일상에서 반복되었다. 그 시간 동안 머리의 지식만큼 마음의 성장도 한 뼘 자랐고 그렇게 상황을 지켜보고 품는 힘이 생겼다.

물론 여전히 부족하지만, 교육을 받는 과정 동안 나를 성찰하고 질문하며 견딘 시간 동안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다르고, 성장했다. <어린이왕자>의 저자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배를 만들고 싶으면 나무를 주어 오라고 사람들을 부추기거나 임무와 일거리를 부여할 게 아니라 끝없이 펼쳐진 거대한 바다를 갈망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이 과정에 발 담글 다음 후배들을 응원하며, 함께한 4조 그릿과 8기 동기생들 그리고 아산나눔재단에 무한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살아왔듯 그냥 살아가지 않는 것

이정연 서울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 모든 것은 순간적이고 다 지나가는 것...
그리고 지나가는 것은 훗날 소중하게 되리니”

새로운 경계 끝으로 도전하며 내달리다가 푸쉬킨의 시처럼 평범한 진리를 담담한 마음과 진한 감격으로 마주하게 되는 삶의 순간이 있습니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를 시작하고 치열했던 긴 과정을 지나 마무리 짓는 이 순간 역시 저에게는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에서 가장 큰 도전이 무엇이었느냐 질문하신다면 ‘살아왔듯 살아가지 않는 것’이라고 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실천은 ‘관찰, 기록, 변화’라는 과정을 통해 내내 수없이 반복되며 노력되어졌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면접부터 경고처럼 들렸던 “만만치 않은 과정입니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라는 말들의 무게감을 진행 과정 중 온몸으로 느끼면서, 안팎에 일과 사람에 대한 제 안에 ‘희노애락애오욕’을 무감하게 지나치지 않고 직면하는 것부터가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켜켜이 쌓이는 시간 속에서 ‘그 순간의 그 자세가 곧 나의 리더십’이라는 말에 스스로 부끄럽지 않기 위해 힘을 내었습니다.

사람과 상황을 살피며, 익숙한 해결이나 역할 등에서 벗어나는 시도들이 정말 많이 불편하고 아프고 힘들었지만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는 유의미한 시간이었습니다. 저 자신과 참 좋은 동기들과 교수님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상황들이 정말 살아있는 교보재였고, 이들 덕분에 다양하고 선한 리더십과 일을 풀어나가는 방법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것이 리더의 길이라면 그 길을 가는 자신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 성찰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내딛는 걸음이 지치더라도 사람과 상황 ‘때문에 혹은 덕분에’ 결코 포기할 수 없었던 여정이었습니다.

다를 바 없다는 것이 때로는 아리고 아팠지만 다를 바 없음이 때로는 따뜻한 위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익숙함이 주는 편안함에 머무르지 않고
아는 것을 아는 것에 멈추지 말고
새롭게 살아내야 하는 것.

그것이 온갖 상황과 사람을 ‘품는 힘’과 ‘버티는 힘’을 발휘하면서 리더인 제가 삶으로 증명해내야 하는 성과이자 성공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음 속 전쟁 같던 과정도 지나 보니 순간적이었고, 그것은 참 소중한 것으로 저에게 기억되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저에게 ‘살아왔듯 살아가지 않는 것’은 ‘한정 지었던 삶의 태도와 생각의 경계를 넘어보는 용기 있는 행위’라 정의하고 싶습니다. 일과 사람과 상황을 대할 때 새롭게 넘어 볼 수 있었던 소중한 시도들은 모두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덕분입니다.



흙덩이에서 세상에 하나 밖에 없는 귀한 그릇으로 빚어지다

임진희 (재)교보교육재단



험난했던 7개월의 과정을 마치고 드디어 수료하게 된다고 하니, 뭐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옵니다. 시원함, 아쉬움, 대견함 등 복잡다단한 느낌과 단어들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솔직히 회사 일과 공부 사이에서 그저 자리를 지킨다는 데 의의를 두고 달려온 것 같습니다. 그날 배운 것들을 정리하고 자아겠다는 다짐은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캡스톤 회의에 무너지기 일쑤였습니다. 또 생각만큼 풀리지 않는 상황들에 맘 상한 적도 있었습니다. 비록 기대치만큼 이루지는 못했지만, 여기까지 버텨온 저 스스로가 대견합니다. 오늘만큼은 잘했다고, 이만하면 노력했다고 다독여주고 싶습니다.

변화와 도전정신, 그리고 행복한 동반자는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에서 얻은 가장 큰 수확입니다. 비영리와 영리의 콜라보를 배움으로써 사회문제를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생겼습니다. 또한 제가 무엇을 모르고 무엇을 더 배워야 할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소중한 깨달음을 얻게 해준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는 제 인생에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무엇보다 삶의 비전과 고민을 함께 나눌 동기들을 얻게 된 것은 그 어떤 것보다 빛나는 선물입니다.

이제, 프로젝트 진행의 무게감을 벗고 한결 홀가분한 마음으로 동문들과 만들어갈 네트워크가 참으로 기대됩니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는 '한 사람을 빚어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흔하디 흔한 흙덩이에서 세상에 하나 밖에 없는 그릇을 만들기 위해 시간과 정성을 들이듯,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빚어가는 모습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에게 전폭적으로 지지 받고 격려 받는 느낌이 참 신선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의 모습은 제가 하는 사업방식의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백 마디 말보다 실천하는 삶으로 모범을 보여준 아산나눔재단에(특히 백민경 매니저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수료는 배움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배움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앞만 보고 달려왔다면 이제 한숨 내쉬며 그동안 배운 것들을 되새김질해야겠습니다. 전략, 리더십, 인적 자원, 마케팅, 사회혁신, 캡스톤 등 여러 교수님께서 정성껏 가르쳐 주신 내용이 온전히 제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또 다른 이에게 행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에서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비영리 생태계를 더욱 건강하게 만드는 데 일조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리더십은 찰나의 예술

정태민 한국해비타트



올해 4월 나는 상당히 설레던 것으로 기억한다. “내가 한 단계 더 도약하겠구나”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그러나 험난한 여정이 시작되자마자 난 당황하고 나자빠졌다. 간신히 정신을 부여잡고 생각을 고쳐 잡았다. “내 바닥부터 빨리 찾아내야 하겠구나” 리더십은 어느 일정한 위치에 있다고 나타나거나 발휘하는 것이 아니었다. 리더는 직책과 동일시될 수 없으며 직책은 단지 분업화되어 있는 것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나는 한참을 착각하고 살아왔다. 앞으로 주어지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더 나은 미래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과거의 것 중 버릴 건 버리고, 호주머니 속에 꼭 넣어야 할 것만 지닐 수 있을까?



그 구별해 내기는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이 될 것이다. 그러나 분별하지 못하면 짜증 나고 진부하고 재미없는 과거는 또 반복될 것이다. 그리고 나 또한 동일한 패턴을 다시 살아갈 자신이 없다. 내 바닥 근처를 봐 버렸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때 썼던 일기장 십 여권을 집에 가져와 울먹이며 나를 돌아보던 애잔함과 울먹함이 생각난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는 수료하지만, 자아 성찰의 과정은 아직 수료 전이다. 교만에서 겸손으로 가는 여정은 매일의 철저한 자아 성찰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세상이 만들어 놓은 흐름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생각하고 지혜로운 자유의지를 발휘하면서 자주적이고 진정성 있는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어느 상황에서 어떠한 형태로 리더가 될지는 모른다. 앞으로 펼쳐질 수많은 찰나의 순간순간들을 살아내고 돌파하기 위한 예술적 감각이 필요하다. 그러한 예술가가 되길 소망한다.

치열했지만 느슨했던, 핑계거리

조미진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



계획은 이랬다. 우선 유연근무제를 신청한다. 월, 수, 금요일은 업무에 집중하면서 틈틈이 과제가 밀리지 않게 밑 작업을 해 놓는다. 주말은 평일에 못다 한 집안일을 하면서 본격적인 과제 수행 모드로 전환한다. 그리고 월요일, 다시 상쾌한 일주일을 시작한다.

물론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라는 걸 알았다.

그럼에도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과정을 위해 유연근무제를 신청하고, 수업과 과제를 위해 정시에 퇴근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과제는 기한까지 물리고, 진도는 더디게 나아갔다. 수업과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치열했지만, 수업과 과제를 할 때만큼은 느슨했던 사람이 나왔다. 물론 애를 쓰고 잠을 줄이긴 했지만.



7개월의 과정은 늘 가던 방향과는 조금 다르게 갈 수 있는 계기였고, 일을 느슨하게 해도 된다는 적합한 핑계이기도 했다. 사람들은 다르게 가는 나에게 물었다. 그걸 왜 해요? 그걸 하면 뭐가 달라져요? 뚜렷하게 답할 순 없었지만 익숙한 관계에서 잠시나마 벗어나고 싶었다. 그 대가는 혹독했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은 촘촘하고도 치열하게 나를 재촉했다. 그 덕분에 이를 핑계 삼아 사람들에게 힘듦을 이야기할 수 있었고, 나를 더 꺼내어 볼 수 있기도 했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의 교육과정이 내 인생의 최고도, 최선이었다고도 말할 수는 없지만, 이 과정을 통해 내 호흡을 관찰할 수 있었다는 것만큼은 분명하다. 혹,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인지 잘 모르겠는 분이 있다면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과정을 추천해드리고 싶다. 과제에 빠져 사느라 그런 생각조차 잊게 만들어버리는 마법 같은 매력을 지녔으니까.

끝으로 과정을 함께 만들어준 아산나눔재단 사회변화교육팀, 모듈별 선생님들, 그리고 AFA 8기 수강생들에게 고마움을 표한다. 긴 기간 동안 나의 핑계를 들어준 지인들과 밤새 내 곁에 있어 준 고양이 쭉쭉이 있어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컵 쌓기로 만난 인연들, 4조 그릿! cheers~

흔들리며 가자, 새로운 봄을 기대하며

최봄 서울YWCA



봄, 감사함으로 시작하다

2019년 봄을 맞이하기 전, 세 차례의 길고 긴 전형은 나 자신을 점점 겸손하고 작아지게 했다. 그리고 쉽게 오지 않을 것 같았던 귀한 기회와 마주하였을 때 마치 선물과 같았고 그래서 더욱더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었다. 선배로부터 이 과정이 대상포진에 걸릴 만큼 힘들다는 것을 오랫동안 들어왔기에, 수료하는 그 날까지 입술을 깨물며 이 선물과 같은 시간을 제대로 그리고 잘 견디리라 다짐했던 때가 벌써 7개월 전이다.

여름, 운동장 밖에서 나를 보다

전략, 인적자원, 마케팅, 재무회계, 리더십, 캡스톤, 문제해결까지 과정의 모듈 하나하나가 내게는 새로운 자극이며 설렘이었다. 그 과정 가운데 운동장 밖에서 나를 바라보는 연습은 참 고통스럽고 처음 경험하는 낯선 시간이었다. 평소에 스스로 인지하지 못했던 나를 발견하기도 하고 기대만큼 서 있지 않은 나 스스로 실망하기도 했다. 나의 언어, 행동, 몸짓 하나하나가 내 눈에 들어왔을 때는 점점 더 부끄러워졌고 흔들리기도 했다. 하지만 변화의 여정에서 내려오지 않도록 나 자신을 계속 붙들어주고 싶었다. 나를 악기처럼 다루어 찰나의 예술을 펼치기가 정말 쉽지 않지만, 운동장을 보며 필요한 곳에 나를 넣는 노력을 삶에서 계속 시도해 보리라 다짐한다.

가을, 프레임 밖 새롭고 다른 프레임을 만나다

프로젝트에 실제적 도움을 기대하며 준비한 해외방문연구조사에서는 다양한 기관의 활동가들을 만나며 사회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프레임, 그리고 전혀 다른 프레임을 접하며 신선한 충격과 동시에 사고의 전환에 큰 자극이 되는 경험을 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문제해결에 앞서 '사람을 우선적으로 이해'하려는 그들의 노력이 나와 현장에서의 활동을 되돌아보게 하였고, 활동의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마음 깊은 곳의 울림은 앞으로도 사회 변화를 위한 활동의 동력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겨울, 과거와 능동적으로 이별하고 새로운 봄을 기대하다

전 과정을 마치는 시간이 다가오니 지나간 시간을 되짚어본다. 의미들이 내 안에서 더욱더 깊어진다. 그리고 과거가 나 자신을 반복시키지 않도록 과거와 능동적으로 이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수님의 말씀이 마음 깊이 새겨진다. 과거의 나와 이별하고 겨울을 지내고 나면, 새로운 봄을 만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를 더 설레게 한다. 전 과정을 함께 한 8기 모든 분들에게 박노해 시인의 시 '흔들리며 가자'로 마음을 전하고 싶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부드럽고 강해져야겠네
강한 신념은 유연한 신념이니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바람 따라 흔들려야겠네
흔들릴 때마다 각오하는 자가 가장 무서운 자이니

가자 가자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뿌리 깊은 걸음으로 흔들리며 가자

귀한 과정과 기회를 주신 서울YWCA와 아산나눔재단에 깊이 감사드린다. 간접적으로 이 과정을 함께 한 우리 국 실무자 한 명 한 명에게 감사하며, 무엇보다도 7개월의 긴 시간 사랑으로 격려로 함께 한 우리 가족, 특별히 화요일과 목요일 밤마다 늦은 시간까지 안 자고 기다리며 '엄마, 밥은 먹었어?'라고 물어봐 주는 사랑스러운 딸 지효와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 전한다.



우물 안 개구리를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한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최현주 과천시장애인복지관



봄비가 내리던 2019년 4월 6일. 'A-9 최현주'라는 이름표를 달고 아산나눔재단에서 면접을 보던 때가 떠오릅니다. 내가 이곳을 다시 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어색하게 눈인사를 하고 돌아서던 모습. 이제는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8기 최현주'라는 이름표를 달고 아쉬움의 인사를 해야 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저는 한 편의 영화보다 드라마를 좋아하고 소설책보다 잡지를 좋아합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야 다음 편을 볼 수 있고, 매회 이어지는 새로운 내용이 저를 설레게 하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는 재미난 드라마나 좋아하는 잡지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새로운 강의, 다양한 사람들, 낯설지만 공감되는 고민들로 매번 다음 주, 다음 강의들이 기대되고 기다려졌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이 없었다면 나의 2019년은 어땠을까 상상해봅니다. 아마도 우물 안 개구리처럼 내가 보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내가 하는 고민이 제일 심각한 고민이라고 생각하며 그 자리를 맴돌고 있었을 겁니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는 우물 밖으로의 세상을 살필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었고 감사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안 되는 걸 되게 하려고 애쓰는 내 모습을 인식할 때쯤 리더십 강의를 들으며 내 이야기인 것 같아 가슴 뜨끔했고, 리더의 모습에 대한 정답을 찾고 싶을 때 캡스톤을 하며 상황에 적절한 개입, 운동장 밖에서 운동장 안을 살필 수 있어야 한다는 찰나의 예술이 리더십임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곳에서 조금 더 나아질 세상을 향해 애쓰는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8기 동기들, 평상시에 만나기 어려운 강의로 귀한 지혜를 나누어주신 교수님들,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고 애써주신 아산나눔재단 직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7개월의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좋은 세상을 움직이게 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을 깨는 불편함, 나를 찾는 여행

추주형 한국사회복지사협회



1. '나'를 찾는 여행: AFA는 아는 걸 가르칩니다. 모르는 것도 있긴 합니다. 당연하죠. 아는데 못 하던 것, 아는데 안 하던 것에 눈을 뜹니다. 번쩍! 하고요. 신기합니다. 아는 건데, 왜 안 하고, 못 하는 걸까요? 개인이 아닌 구조를 보라 하지만, 제 개인 문제는 아닐까, 여전히 범위를 좁힙니다. 그만큼 '나'에 대해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2. '알'을 깨는 '퇴사학교': 지금 조직에만 벌써 13년 차. 이전 조직까지 합치면 사회 경험은 훌쩍 늘어납니다. 강산이 두어 번 바뀔 세월에 심신이 적응해 있기 때문인 건 아닐까, 반성도 합니다. 누구나 자신만의 알에 갇혀 있을 텐데, 그 알을 깨도록 돕는 기회가 훈습마다 1번씩은 꼭 있습니다. 그간 놓치고 있던 것들에 대한 반성뿐만 아니라, 나 자신과 조직에 꼭 한 번 적용할만한 기술적인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빨리 성장하고 싶은 욕구, '이왕이면'이 아닌 '반드시' 바르게 성장하고 싶은 욕구, 이럴 바엔 아예 새로운 조직을 만들고 싶은 욕구가 샘솟습니다. 그래서 '퇴사학교'라는 말까지 나오나 봅니다.

3. 불편함이 즐거운 시간: 내가 곧 조직이고, 조직이 곧 나이니, 나 또는 조직이 변하면 됩니다. 지킬 건 지키고, 바꿀 건 바꾸고. 좌우, 보혁, 신구, 남녀, 노소의 조화. 그것이 그간 제가 바라던 이상 인데요, 이것이 너무 큰 그림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고민 중입니다. 사회복지라는 우물 안에 있는 한, 제 작은 몸으로 그 짐을 지는 게 맞는 건지(바람직한 건지), 현재 제 지위와 역할로 한정하게 되는 모습, 한계짓기도 되풀이하며 수면장애도 겪습니다. 전망을 세우는 과정이니 불편함이 즐거운, 그래서 AFA입니다.

4. 현실 안주 타성을 깨는 과정: 바꾸기 쉬운 건 조직보다는 개인일까요? 나부터 바뀌야 하는데, 실제 바뀌려면 혼자로는 어렵다는 것도 배움의 과정입니다. 어쩌면 내가 조직을 변화시키고 조직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닌, 나 하나만 바뀌면 많은 것이 달라질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결국, 오만가지 이유를 들어 현재에 안주하려는 개인의 타성, 그 알을 깨는 과정. 그것이 AFA 인 것 같습니다.



5. 분노와 조급함이 공존한 우리: 변화는 불편을 동반합니다. 현재 적응 상태대로 편할 것이냐, 시대에 조응하며 불편을 감내하고 변화를 주도할 것이냐, 정해진 답을 찾아 떠나는 여행이 참으로 불편합니다. 개개인의 알의 크기와 두께가 다르니, 처지와 실정을 살피게 되고, 매사에 진중하고, 관계 맺음에 더 조심스러워합니다. 체질 개선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화가 나 있는 상태이고, 조급해 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훈습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에 돌입했고, 연장전 과정에서 승부차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6. 파문 바람: 안팎에서 '알'을 함께 깬 동료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AFA는 바다이고, 참여자들은 물방울입니다. 바다에 떨어진 한 사람의 변화가 지구적 과제에 작은 물결을 만들고, 개개인의 물결이 만나 파문을 일으키길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는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를 향하고, 어디서나 넘나들 것입니다.



無題

한동우 (재)함께일하는재단



개인적으로 계획에 없었던 교육이라 선정된 이후에도 많은 갈등이 있었다(원래 계획에 없는 일은 안 하는 성격이다). 망신스럽더라도 포기를 하여야 하나, 아니면 계획했던 일들을 미루고 교육을 받아야 하나 고민했다. '이왕 주어진 기회인데 한 번 해보자!!' 하고 시작했지만 처음 몇 주 동안은 적응하기 힘들었다. '아니 계속 왜 이렇게 힘들까?' 뒤를 돌아보니 모든 것에 대한 회의에 가득 차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 엔지니어 일을 하다 뜻(?)이 있어 비영리 영역으로 옮겨와 오랜 기간 있었지만, 일과 사람에 대한 실망으로 강한 회의감에 가득 차 에너지가 소진되어 있었다.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타성에 젖어 관성으로 일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이 분명히 보였다.

어느 날 출근길 라디오에서 어떤 말기 암 환자의 사연을 들을 수 있었다. 죽을 목숨이었지만 전적으로 의사에게 자신을 맡기고 치료를 받으면서 새로워지는 자신과 삶의 희망을 느낄 수 있었다고... 나도 누군가에 대한 신뢰와 치유가 필요함을 알게 되었다. 조직의 변화를 이끌어야 하고 사람을 육성하는 위치에 있지만 정작 나 자신의 변화와 육성을 이끌지 못하고 있었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과정에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고 집중하게 되었다. 직원들과의 대화에서 자연스럽게 교육 과정에서 배웠던 다양한 단어들을 사용하였고, 그런 단어들의 사용을 통해 과정을 리마인드하고, 더 많은 성찰을 통해 실제 업무에 구체적인 적용까지 이끌어 내기도 하였다. 인적 자원 모듈은 현재 진행 중인 인사 규정 개정안에 반영하여 조직의 새로운 인사 비전과 보수체계를 설계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재무회계 모듈은 공익법인의 재무적 의무와 회계 집행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다. 팀장 교육을 위해 리더십 모듈을 몇 번이고 곱씹으며 보게 되었다. 내년도 재단 운영과 사업의 성과목표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설정할지 전략 모듈을 통해 방향을 잡을 수 있었다.

그동안 약화되어 있던 재단의 브랜드와 이미지를 어떻게 향상 시킬지 마케팅 모듈을 통해 모색할 수 있었으며, 내·외부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문제해결 모듈에서 재미있게 배울 수 있었다. 사회혁신 모듈에서 다양한 현 사회의 문제들을 진단하고, 미래에 대한 도전에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고민하게 되었다. 그리고 캡스톤, 처음에는 그 어색한 분위기와 리플렉션 메모지의 질문에 거부감이 들었지만, 사람과 일에 대해 다양한 사고를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비영리 조직이 더 잘 되기 위해서는 경영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동안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시도들과 실행을 해보았다. 돌아보니 잘못된 개념으로 시행착오도 많았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에게 상처도 주었다. 그리고 나도 실망이 많았다. 특히, 나의 리더들에게... 이제 개념이 어느 정도 정리된 것 같다. 그리고 과거와 잘 이별할 수 있을 것 같다. 가져가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들이 조금씩 구분되고 있다. 아직 화해는 못 했지만 회의감으로 나를 계속 망치고 싶지 않아졌다.

훌륭하신 교수님들과 29명의 동기 덕택이다.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리며, 특별히, 그릿 조 정민, 미진, 지원, 봄, 서영에게 미안함과 애정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제8기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잊지 못할 순간들

입학식

오리엔테이션 워크숍

중간워크숍

캡스톤 발표회

해외방문연구조사

수료식



8th
Asan Frontier
Academy









2019. 04. 24
~ 2019. 11. 23





홈페이지

www.asan-nanum.org

페이스북

www.facebook.com/TheAsanNanum

블로그

blog.naver.com/asan_nanum

